SN 300자로 hip 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KBS세계는지금 유튜브 채널 캡처

TVN 예림이네 만물트럭 캡처

고령화 시대, 슈퍼마켓이 찾아간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동식 슈퍼마켓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층은 젊은층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식 슈퍼마켓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정상적인 물건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나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쇼핑 약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TVN 방송 '예림이네 만물 트럭'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길 위의 만물상'을 표방하며 산골짜기부터 망망대해 외딴섬까지 쇼핑 약자를 대상으로 트럭에 물건을 싣고 다닌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동식 슈퍼마켓은 지난 2012년 토쿠시마현에 설립된 토쿠시마루다. 지역 슈퍼마켓과 제휴해 개인 사업자가 점포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경트럭에 싣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채소와 육류, 생선 등 식재료와 생필품 등 1200~1400여 개의 상품이 트럭에 실린다.
일본의 대형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도 2011년부터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식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삼각김밥, 도시락, 빵 등 일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상온·냉장·냉동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동식 슈퍼마켓 등 쇼핑 약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때다.

#SnackNews #이동식슈퍼마켓

#김해나기자 #최홍은편집디자인

브라비! 시민오케스트라-광주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학대 겸임교수
문화학 박사

문명이라는 영단어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 사회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를 말한다. 문명이란 도시의 크고 화려한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명은 인간의 역사이면서 정신이고, 그에 따른 근간은 문화와 예술이다.

오늘날의 문화와 예술은 한 나라의 수준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개괄적 지표가 되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행복 추구라는 개인의 니즈(needs)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긍정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 성장 동력에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근자에는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이분법적 가름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프로보다 더 프로다운 오타쿠(おたく)적인 생활 예술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사회의 블록을 형성하던 예술이 이제는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건강하고 건전한 삶에 대한 가치가 더해져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술 활동은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주관성을 뛰어넘어 일반적이고 지역적인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성을 보인다.

그중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효율성과 활용도가 뛰어나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활동 중 하나이다. 특히 악기를 활용한 취미생활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사회성, 감성 및 성취감 등을 향상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한때 고급예술의 대표적 장르였던 오케스트라 활동도 지금은 나이와 계층의 구분 없이 관심과 열의가 있는 누구나 참여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열어가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면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노년의 어른들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악기를 벗 삼아 삶의 활력과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은 서양음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악기편성으로 16세기 말부터 수 세기 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광주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976에 처음 창단되었고, 지금은 연간 70회 이상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연은 매진되어 장사진을 이룬다.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모형으로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직된 '꿈의 오케스트라'와 2008년에 창단된 '광주YMCA 드림 청소년오케스트라', 일반 직장인들로 조직된 '베누스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수십 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이 역동적인 연주회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음악 활동들은 아시아문화예술의 도시, 광주광역시를 예술의 가치와 품격이 있는 도시로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벽장 속 악기를 꺼내자'라는 구호로 시작된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시민오케스트라-광주'도 올해 8년째를 맞게 됐다. 지금까지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예술 활동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은 시대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미 선진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취미활동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 광주도 광주만의 문화 기호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되새김하고 앞날의 비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음악이 흐르는 광주, 내일이 빛나는 문화도시 광주로 자리하길 희망해 본다.

기고 주재희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장

광주의 1호 유니콘 기업 당신이 주인공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의 유니콘 기업 22개사를 발표했다. 창업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니콘 기업이 IT 기술과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고 속속 탄생하고 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22개의 명단에 아쉽게도 광주 기업은 하나도 없다.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과 경기 기업이다. 창업 기업의 성장 환경은 자금과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융합 현실,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은 놓칠 수 없는 키워드다. 민선 8기 광주시에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창업생태계 혁신과 창업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먼저, 5천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비와 초기 창업자부터 가장 폐업률이 높아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이라 불리는 3~4년차 기업, 사업을 확장해 도약하는 시기까지 적기의 자금 조달이 필수다.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보니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 자금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인공지능, 문화산업 등 핵심 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3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5천억 펀드가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창업 기업과 지원기관, 창업기획자, 투자자가 한 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주역에 호남권 최대의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광주역 창업 밸리에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선다. 이 곳은 창업기획자를 유치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부설연구소 등을 집적화한다. 지역 주력 산업의 기술 및 실증 지원, R&D 지원이 가능한 기술 연계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 투자자 주도로 창업자 발굴부터 투자까지 이어지는 창업 혁신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실, 제조 공간 등이 들어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본촌산단의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I-PLEX,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창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가 창업자들에게 기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 전체를 제품 실증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학,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혁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적용 시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반응, 시장 적용 가능성 등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시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응한 기술 보유 창업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선구매를 통해 공공부문 판로도 개척할 수 있다. 창업자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자금이 모이는 선순환을 통해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주제의 창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부터 예비 창업자, 세계 투자자까지 참여하는 창업 페스티벌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에 세계적인 명사를 초청해 글로벌 산업 동향과 이슈에 대해 듣는다. 지역 우수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창업가와 투자자가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진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창업가들끼리 같은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야 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창업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씨-랩 아웃사이드(C-Lab Outside)를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의 유망 창업기업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1억 원을 지원한다. 사무 공간과 삼성전자와 다양한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팀은 해외 IT 전시회 출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지방의 창업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을 창업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창업기업 육성에도 온 도시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대학, 공공기관 모두가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도와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첫 유니콘 기업 타이틀 도전을 향해 함께 뛸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